

# 나라잃은시대 후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 이원수와 남대우를 중심으로 \*

박 태 일\*\*

##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남대우와 지역작가의 자긍심          |
| II. 이원수와 문학적 명성의 그늘 | 1. 필명의 확장과 지역 정체성            |
| 1. 기록 오류와 작품 누락     | 2. 중복발표의 열정                  |
| 2. 재발표와 기억 훼손       | IV. 마무리                      |
|                     | (붙임 1) 이원수 작품 족보기(1938-1945) |
|                     | (붙임 2) 남대우 작품 족보기(1938-1945) |

## I. 들머리

나라잃은시대 후기<sup>1)</sup>는 왜로 제국주의의 식민 책략이 가파르게 극점으로 나

\* 이 글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3-072-S1009)을 받아 이루어졌다.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1) 1910년에서 1945년에 걸치는 나라잃은시대 35년에 대한 내부 시기 구분은 관점에 따라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후기로 잡는다. 이 시기 왜로의 식민 책략은 이른바 '내선일체'론을 중심으로 중국대륙과 태평양

아갔던 때다. 이 시기 우리 문학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첫째, 문학사회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매체·작품과 같은 실증 자료에 대한 망실·은닉·훼손이 심각한 공간이 이 자리다. 발굴 사료가 지닌 뒤틀림에 따라서 언제든지 불거질 새 논란 거리가 줄을 서 있는 형국이다. 둘째, 이 시기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볼 때 한글로 된 작품 발표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일인가를 당대 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삼스럽고도 고통스럽게 묻고 있는 자리다. 이 물음은 오늘날 그 시기 문학을 다루는 연구자에게 고스란히 옮겨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당대 문학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는 뜻밖에 편차가 크다. 그 가운데서 핵심 일거리는 부왜문학이다.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갑년에 이르렀다. 이제는 부왜문학 문제가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독립된 한 자리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이 시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을 재구성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1935년 카프 해체 이후 프로 아동문학의 퇴조는 바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퇴조를 뜻한다고 할 정도다.<sup>2)</sup> 1920년대 중반부터 문단에 나서기 시작하여, 활발하게 한국 아동문학의 정착을 도왔던 지역문인들은 카프 해체를 앞뒤로 한 시기에 거의 하나같이 문학 궤적을 바꾼다. 권환·이주홍·엄홍섭·신고송·양우정·이구월·김병호·손풍산과 같은 이가 그들이다.<sup>3)</sup> 게다가 이 글에서 다룰 후기에 이르면 활동한 이들은 손에 꼽힐 정도다. 그 가운데서 이원수와 남대우만이 1945년 을유광복 가까이 작품 활동을 잇고 있어 이채롭고 문제적이다. 이채로움은 물론 그들의 문학 생애에서 다른 지역문학인에 견주어 이 시기 남달리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일로 말미암는다. 문제적인 것은 어찌면

---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우리에게 대한 수탈을 극대화했다.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1938-1941)’과 ‘국민총력운동’(1942-1945)이라는 ‘전시동원체제’를 법률로 성립시킨 때다. 문학 쪽으로는 부왜문학이나 ‘이중어 글쓰기’(김윤식)를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로 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2)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카프 사이의 적극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한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박태일,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161-179쪽.

3) 권환은 검거되었고, 손풍산은 초계로 내려가 적색 농조활동을 하면서 잠행을 거듭했다. 이구월과 김병호는 학교로 돌아가 문학 활동을 못했다. 엄홍섭과 이주홍은 잠시 몸을 피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전업 문인으로서 문학 안팎 활동을 거듭했다.

그들의 문학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고리를 이 시기 활동에서 엿볼 수 있다는 데서 말미암는다. 이원수의 부왜문학과 남대우의 폭발적인 발표 역량이 그것이다.

문학 향유 활동의 처음과 끝은 문학제도 내화의 과정이라 해서 부풀림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매체는 핵심 고리 묶을 한다. 매체 활동의 특이성은 작품 내용에 대한 선부를 해석보다 더 정확한 문학 이해의 표지가 될 수도 있다. 나라읽은시대 후기는 한글로 된 매체 활동이 썩 줄어들고, 매체 활동 자체가 당대 식민 책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때다. 작품 발표는 이념 선택과 대응의 공간으로 바로 건너서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 시기로 나아갈수록 매체 활동은 더욱 꼼꼼하게 다루어질 일이다.<sup>4)</sup> 이 글은 나라읽은시대 후기 이원수와 남대우를 중심으로 이 둘의 문학 매체 활동에 대한 실증적 해명에 이르고자 하는 목표 아래 쓰여진다. 이 일을 위해 먼저 이 시기 두 사람의 작품 발표 목록을 확정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 발굴과 새로운 문학적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다. 두 사람의 고심과 보람이야말로 나라읽은시대 후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자리를 고스란히 암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4)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읽은시대 후기의 문필활동은 김윤식이 이중어글쓰기라 중립적으로 일컬었던 모습으로 수렴된다. 이 시기는 이른바 제국언어인 ‘국어’(일본어)쓰기의 전체화에 더하여, 그 아래 ‘지방어’ 가운데 하나로서 ‘조선어’쓰기가 역설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조선어학회박해폭거를 저지르는 한 쪽으로 이른바 ‘신체제’의 효과적인 생활언어로서 ‘조선어’가 누빌 자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 틈새에서 『매일신보』·『만선일보』·『춘추』·『半島の光』 ‘언문판’·『아이생활』과 같은 한글 매체와 『일본부인』 ‘조선판’과 같은 일문 잡지의 한글본이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글로 된 작품 발표 행위는 나라읽은시대 어느 시기보다 식민 체제에 대한 대응이념 문제와 이어져 있다. 이원수와 남대우야말로 이 문제에 깊숙이 가 닿아 있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이다. 이들의 매체 활동뿐 아니라, 작품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일은 글의 목표에서 벗어난다. 다음 기회로 미룬다. 아래 글에서 이중어글쓰기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47-50쪽. 배계화, 「1930년대 말 ‘조선’ 문인의 ‘조선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우리말글』 33집, 우리말글학회, 2005, 337-359쪽.

## II. 이원수와 문학적 명성의 그늘

### 1. 기록 오류와 작품의 누락

동원 이원수만큼 한국 근대 아동문학계에서 사랑 받고 상찬을 받아온 작가는 드물다. ‘한국 아동문학의 거두’, ‘삶과 글을 통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울’, ‘민족 아동문학의 대가’라는 찬사가 그를 꾸며온 말이다. 게다가 1년에 걸친 투옥 경험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저항정신을 가진 항일투사’로까지 올라선 그의 삶과 문학은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듯 싶다. 다른 의심이 끼여들 틈이 없다. 그리고 그 세월은 이원수 작사, 흥난과 작곡의 노래 『고향의 봄』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낸 오랜 추억·사랑과 마찬가지로 깊다. 한 작가에 대한 명성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길로 생산·재생산되었는가라는 물음을 깊이 있게 따져들 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서 이원수가 쓴 부왜 작품을 알린 글<sup>5)</sup>은 작가 이원수에 대한 호오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좀더 깊이 있게 이원수 문학에 다가설라치면 뜻밖에 이원수만큼 덜 알려졌거나, 잘못 알려져 온 명망가도 드물다고 해야 할 정도다. 당혹감은 이제 고스란히 연구자의 몫으로 안겨 든다. 이원수가 누린 높은 명성과는 거꾸로 그의 지난 삶과 문학에 대해 낮은 이해 수준과 자료가 엉성한 데서 오는 당혹감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누구보다 아동문학 연구자들이 1차 책임을 떠맡을 일이다. 그러나 의도 유무를 확인하기는 힘드나 작가 이원수가 떠맡아야 할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나라잃은시대 후기 이원수의 부왜 작품 활동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원수는 1924년 『신소년』에 『봄이 오면』을 처음으로 선봬<sup>6)</sup> 뒤 1945년까지

5) 이원수의 부왜 작품에 대해서는 박태일,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2002년 경상대학교 인문학과학연구소 쟁점토론회)에서 처음 다루었다. 그 뒤 박태일,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배달말』 32집, 배달말학회, 2003)에서 따로 떼어 살폈다. 이 두 글은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청동거울, 2004, 95-125쪽, 165-201쪽)에 되실렸다. 그리고 이 글들에 대한 학계의 첫 반응이 김화선, 『이원수 문학의 양가성』(『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211-238쪽)이다.

6) 박태일, 『나라잃은시기 아동매체로 본 경남·부산 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모두 125편 남짓한 작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서 동시(동요)는 광복 뒤 동시집 『종달새』를 내면서 한 차례 가려 뽑아 갈무리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시집인 『빨간 열매』<sup>7)</sup>에 거의 그대로 되실렸다. 『종달새』에는 동시 33편을 담았다. 그러면서 작품 끝에 부차텍스트로서 실린 지면은 뺀 채, 게재 연월 또는 연을 밝혔다. 「가시는 누나」 한 편만 예외다.<sup>8)</sup> 그런데 나머지 32편의 게재 연월 기록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본 결과, 바르게 적힌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작품은 「염소」 한 편뿐이다.<sup>9)</sup> 너무 뜻밖의 결과다. 이제 『종달새』에 실린 작품들을 게재 사실 확인이 가능했던 것과 그렇지 못했던 것, 그리고 유행광복에 앞선 것과 뒤선 것으로 나누어 연대순으로 다시 펼쳐 보인다. 게재 연월 기록에 대한 그 뒤 변천과 수정·보완 사항, 그리고 원본 확인 상황은 앞에서 보였다.

『종달새』	『빨간 열매』	『전집 1』	원본 확인
「헌 모자」(1929. 10.)	1929. 『동아일보』	1929. 『어린이』	1930. 2. 20. 『조선일보』
「잘 가거라」(1929. 7.)		1930. 『어린이』	1930. 9. 『어린이』
「썰레꽃」(1930. 5.)	1930. 『어린이』	1930. 『신소년』	1930. 10. 『신소년』 수록
「눈 오는 밤에」(1931. 12.)		1931. 『어린이』	1934. 2. 『신소년』 <sup>10)</sup>
「부영이」(1935. 10.)	1935. 『조선일보』	1935. 『조선일보』	1939. 『조선일보』, 수정 게재
「새봄맞이」(1936. 1.)		1947. 『소학생』	1947. 3. 『소학생』

- 7) 이원수의 동시 작품은 『종달새』(새동무사, 1947)를 거쳐 『빨간 열매』(아인각, 1964)와 『너를 부른다』(창작과비평사, 1979), 그리고 『고향의 봄-동요·동시(이원수아동문학전집 1)』(웅진출판, 1993 : 본문에서는 『전집 1』이라 적음), 『아름다운 산하에(이원수아동문학전집 26)』(웅진출판, 1984:본문에서는 『전집 26』라 적음)에 부분 수정을 거치면서 되실렸다.
- 8) 연구자가 지닌 『종달새』는 책 앞쪽이 몇 장 떨어져 나간 파본이다. 따라서 앞에 실렸던 세 편, 곧 「종달새」와 「종달새 노래하면」 그리고 「자장 노래」 경우는 게재 연월 표시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 나온 동시집 『빨간 열매』의 ‘작품 연대 기타’에 실린 기록으로 그 게재 내용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다.
- 9) 원본에 ‘1940. 1’로 적혀 있다. 이 작품은 『조선일보』 1940년 1월 20일치에 실려 있는 것이니, 기록된 사실이 옳다. 그리고 이원수 스스로 자신의 작품집에다 여는 사람들의 것과 달리, 부정확한 사실이 있을 것임을 알리는 표지를 두고 있다. “부정확한 점을 발견하신 분은 정정을 위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원수)” 이원수, 「작품 연대 기타」, 『빨간 열매』, 아인각, 1964. 150쪽.
- 10) 「눈오는 저녁」을 고쳐 실었다.

「보오야 넌 네요」(1938. 8.)	1938. 『소년』	1938. 『소년』	1938. 10. 『소년』 수록
「밤눈」(1938. 11.)		1936. 『종달새』 <sup>11)</sup>	1940. 1. 28. 『조선일보』 「눈 오는 밤」
「앉은뱅이 꽃」(1939. 12.)		1939. 『종달새』	1940. 3. 31. 『조선일보』
「염소」(1940. 1.)	1940. 발표지 미상	1940. 『종달새』	1940. 1. 20. 『조선일보』
「종달새」(1940. )	1940. 발표지 미상	1940. 『종달새』	1942. 6. 『반도의광』
「자장 노래」(1942. )	1942. 발표지 미상	1942. 『소년』 <sup>12)</sup>	1940. 7. 『소년』 수록
「달밤」(1946. 9.)	1949. 『소학생』	1947. 『소학생』	1947. 10. 『소학생』
「기차」(1928. 5.)		1928. 『어린이』	미확인
「설날」(1930. 1.)		1930. 『어린이』	미확인
「장월 대보름」(1930. 2.)		1930. 『어린이』	미확인
「이삿길」(1932. 2.)	1932. 『신소년?』	1932. 『신소년?』	미확인
「포푸라」(1932. 10.)		1932. 『어린이』	미확인
「첫 나드리」(1938. 4.)		1938. 『어린이』	기록자 잘못으로 미확 인 <sup>13)</sup>
「보구 싶던 바다」(1939. 7.)		1939. 『종달새』	미확인
「양말 사러 가는 길」(1939. 11.)	1939. 『조선일보』	1939. 『조선일보』	『조선일보』 미수록, 미 확인
「빨강 열매」(1940. 1.)	1940. 발표지 미상	1940. 『종달새』	미확인
「가없는 별」(1941. 11.)	1941. 발표지 미상	1941. 『종달새』	미확인
「군밤」(1942. 11.)		1942. 『종달새』	미확인
「꽃불」(1942. 6.)	1942. 『새동무』	1942. 『새동무』	『새동무』 미입수로 미 확인 <sup>14)</sup>
「종달새 노래하면」(1943. )	1943. 발표지 미상	1943. 『종달새』	미확인
「개나리 꽃」(1945. 3.)	1945. 발표지 미상	1945. 『종달새』	미확인

11) 『종달새』에서는 1938. 11로 되어 있으나, 『전집 1』에서는 1936으로 고쳤다. 『종달새』 수록 사실을 밝혔을 경우 『전집 1』 원문에는 ‘편집자주 : 시집 『종달새』에 수록되었음’이라 적고 있으나, 여기서는 줄여서 『종달새』로만 적는다.

12) 『소년』은 1937년 4월 창간호로 시작하여, 1940년 12월치로 폐간된 매체다. 1942년에는 『소년』 발행 사실이 없다.

13) 『어린이』는 1934년 7월치까지 통권 122호를 냈고, 광복기 1948년 5월치로 복간하여 1949년 12월치까지 15권을 다시 냈다. 1938년도에는 『어린이』가 폐간되었을 때로 낸 사실이 없다.

14) 그러나 1942년에는 『새동무』라는 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록자 잘못으로 말미암은 미확인 상태다. 『새동무』는 1920년에 한석원의 손으로 한 차례, 광복기에 김원룡의 손으로 한 차례, 모두 두 차례 나온 아동잡지다.

「버들괴리」(1946. 3.)		1946. 『종달새』	미확인
「첫눈」(1946. 9)		1946. 『종달새』	미확인
「병원에서」(1946. 9.)	1946. 『새동무』	1946. 『새동무』	미확인
「저녁」(1946. 9.)	1946. 『새동무』	1946. 『새동무』	미확인
「가을밤」(1946. 10.)		1948. 『어린이』	미확인
「가시는 누나」	1929. 『별나라?』	1929. 『별나라?』	미확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린 연월을 확인할 수 없는 작품은 20편에 이른다. 그 까닭은 해당 작품이 실린 매체를 손수 찾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데 있다. 이 가운데서 뒷날 나온 『전집 1』에서 실린 곳을 찾아 밝힌 것이 5편이다. 「양말 사러 가는 길」(『조선일보』 1939. 11.), 「첫 나드리」(『어린이』 1938. 4.), 「포푸라」(『어린이』 1932. 10.), 「설날」(『어린이』 1930. 1.), 「기차」(『어린이』 1928. 5.)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확인 결과 「양말 사러 가는 길」, 「첫 나드리」, 「기차」 세 편은 잘못 밝힌 것이다.<sup>15)</sup> 다시 미확인으로 남게 된 셈이다. 연구자가 손수 작품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설날」, 「포푸라」 두 편은 『전집 1』 엮은이가 적은 지면과 연월이 옳다고 보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한다면 미확인 작품은 18편이다. 이 18편의 게재 연월에 대한 정확도는 앞으로 문헌 발굴 여부에 따라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종달새』의 애초 기록에 잘못이 있을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듯 미확인 상태로 있는 작품 수가 많은 사실은 우리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 고질인 자료 부실 상태로 말미암은 일로 마냥 몰아붙이고 말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집 1』에서 수정 게재하고 있는 내용조차 5편

15) 현재 확인 결과 「양말 사러 가는 길」은 1939년도 『조선일보』에 실린 적이 없다. 『빨간 열매』를 엮으면서 이원수가 손수 고쳐둔 것을 『전집 1』 엮은이가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첫 나드리」가 실렸다고 적고 있는 1938년도에는 『어린이』가 정간되었던 때다. 따라서 연대 자체가 거짓이다. 그리고 「기차」는 1928년 5월에 『어린이』에 실렸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해당 지면을 살펴본 결과 작품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죄 미확인이 되는 셈이다. 「포푸라」, 「설날」의 경우는 1932년과 1930년 『어린이』 게재로 밝히고 있다. 연구자가 손수 확인할 수 없었던 호수가 1932년도에는 7호, 1930년은 1호가 있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전집 1』 수정 사실을 그대로 따른다.

가운데서 다시 3편이나 잘못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일의 원인을 단순히 자료 입수 여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 미확인으로 돌려놓은 작품 18편도 상당수가 잘못 기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게다가 실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13편의 경우도 1편을 제외하고는 12편이 최 실린 연월에 잘못이 있음은 보는 바와 같다. 거듭 하거니와 『종달새』에 실린 33편 가운데서 작품 끝에 실린 연월을 밝히지 않은 「가시는 누나」 1편을 짓혀두고, 나머지 32편 가운데서 「염소」 1편을 제외한 나머지 31편의 확인이 어렵거나 잘못 기록되어 있다.

이원수 생존시 냈던 동시집 『빨간 열매』에서는 『종달새』보다 더 많은 작품이 실리고, 기록 또한 수정·보완된 상태로 올라 있다. 『종달새』에 실린 작품들도 가려 뽑아 실었다. 『빨간 열매』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1950년 6월 앞까지 발표된 것으로 적혀 있는 작품 24편에 대한 원본 확인 결과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빨간 열매』	『전집 1』	원본 확인	비고
「고향의 봄」 1925. 『어린이』	1926. 『어린이』	1925. 4. 『어린이』	전집 연도 틀림
「전봇대」 1935. 『조선일보』	상동	1940. 2. 25. 『조선일보』	
「나무 간 언니」 1936. 『조선일보』	상동	1940. 10. 『소년』	
「자전거」 1937. 『소년』	상동	1937. 5. 『소년』	원제목 「오빠의 자전거」
「아카시아 꽃」 1937. 『소년』	상동	1937. 10. 『소년』 <sup>16)</sup>	
「고향 바다」 1937? 『소년』	1939. 『소년』	1939. 4. 『소년』 <sup>17)</sup>	『전집 1』 연도 정정
「밤 시내」 1937.? 『조선일보』	1948. 『소년』	1940. 6. 9. 『조선일보』 <sup>18)</sup>	『전집 1』 재발표
「빨래」 1938. 『주간 소학생』	1946. 『주간 소학생』	1942. 6. 『半島の光』 재발표	
「오까나와의 어린이들」 1946. 『주간 소학생』	상동	1946. 창간호 『주간 소학생』	
「돌다리」 1946. 『소학생』	상동	1940. 4. 28. 『조선일보』 <sup>19)</sup>	재발표

16) 원제는 「아카시아」다.

17) 햇수만 틀린다.

18) 수정되었다.

19) 원제는 「돌다리 노차」다. 1946년 3월 『주간 소학생』 창간호에 실을 때 「돌다리」로 고쳤다. 『빨간 열매』에서도 『돌다리』였으나, 『전집 1』에 이르러 「징검다리」로 다시 바뀌었다.

「밤중에」, 1946. 『소학생』	1948 『아동문화』	1943. 『아이생활』	「어머니」 개고 재발표
「송화 날리는 날」, 1947.? 『아동문학』	상동	1947. 7. 『아동문학』 3호.	
「토마토」, 1948. 『아동문화』	상동	1948. 『아동문화』 1집	원제 「도마도」
「산길」, 1949. 『소학생』	상동	1949. 『소학생』 70호.	
「진달래」, 1950. 『진달래』	1949. 『소학생』	1949. 4. 66호 『소학생』	
「저녁」, 1947. 『소학생』	1948. 『소학생』	1948. 9. 『소학생』	
「어디만큼 오시나」, 1936.	『소년』 상동	미확인	
「공작」, 1936. 『신시대』	상동	미확인	
「봄 시내」, 1938? 『소년』	1946. 『새동무』	미확인	
「너를 부른다」, 1946. 『어린이신문』	상동	미확인	
「부르는 소리」, 1946. 『어린이신문』	상동	미확인	
「누가 공부 잘 하나」, 1948. 『음악 공부』	상동	미확인	
「빨기」, 1948. 『소년세계』	상동	미확인	『소년세계』는 1952년에 창간
「들불」, 1949. 『어린이나라』	상동	미확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편 가운데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8편이다.<sup>20)</sup> 확인할 수 있는 16편 가운데서 기록이 올바른 것은 7편<sup>21)</sup>이다. 기록이 잘못된 것은 9편<sup>22)</sup>에 이른다. 많은 작품이 『종달새』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발표 매체명이나 발표 연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수록시 24편 가운데서 뒷날 『전집 1』에서 수정을 한 것은 8편<sup>23)</sup>이다. 그 속에서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 7편<sup>24)</sup>, 『전집 1』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것이 1편<sup>25)</sup>이다. 『전

20) 「어디만큼 오시나」, 「공작」, 「봄 시내」, 「너를 부른다」, 「저녁」, 「누가 공부 잘 하나」, 「부르는 소리」, 「들불」이 그것이다.

21) 「고향의 봄」, 「아카시아꽃」, 「자전거」, 「오끼나와의 어린이들」, 「송화 날리는 날」, 「토마토」, 「산길」이다.

22) 「나무 간 언니」, 「고향 바다」, 「전봇대」, 「밤시내」, 「빨래」, 「돌다리」, 「밤중에」, 「저녁」, 「진달래」가 그들이다.

23) 「고향의 봄」, 「고향 바다」, 「밤 시내」, 「빨래」, 「봄 시내」, 「저녁」, 「밤중에」, 「진달래」다.

24) 「고향 바다」, 「밤 시내」, 「봄 시내」, 「저녁」, 「빨래」, 「밤중에」, 「진달래」다. 이 가운데서 「밤 시내」, 「밤중에」, 「빨래」 세 편은 1940년도와 1943년도 발표 작품의 재발표임을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광복기 게재지만 옳게 밝혔다. 그리고 「밤중에」가 실렸다고 기록한 『아동문화』(1948)와 「봄 시내」가 실렸다고 기록한 『새동무』(1946)는 손에 넣을 수 없어 『전집 1』의 기록이 옳은 것으로 넘겨 둔다.

집 1』 엮은이는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셈이다.

『빨간 열매』의 기록을 엮은이가 그대로 따른 작품은 16편이다. 그 가운데서 원본 확인을 할 수 없는 「어디만큼 오시나」, 「공작」, 「너를 부른다」, 「누가 공부 잘 하나」, 「빨기」, 「부르는 소리」, 「들불」 7편을 제외하면 9편<sup>25)</sup>은 원본 확인이 가능한 작품이다. 그 가운데서 다시 확인 결과 『빨간 열매』 기록이 올바른 것은 6편<sup>27)</sup>이다. 나머지 3편<sup>28)</sup>은 잘못 적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잘못된은 고스란히 『전집 1』 엮은이들이 『빨간 열매』의 연대 기록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을유광복 이전 작품 가운데서 『빨간 열매』에 이원수가 처음 찾아 수록한 작품은 「고향의 봄」에서 「봄 시내」까지 11편과 「돌다리」, 「밤중에」 2편을 더해 모두 13편이다. 그 가운데서 원본 확인이 되지 않는 3편을 제외한 10편<sup>29)</sup> 가운데서 『빨간 열매』의 기록이 올바른 것은 「고향의 봄」, 「아카시아 꽃」, 「자전거」 3편뿐이다. 나머지 7편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1939년에서 1942년 사이에 발표되었던 작품임에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 『종달새』와 마찬가지로 『빨간 열매』에서도 게재 연월이나 게재지에 있어서, 기록 오류가 한결같다.<sup>30)</sup>

25) 「고향의 봄」의 발표 연도를 1926년으로 적었다. 실수로 보인다.

26) 「나무 간 언니」, 「아카시아 꽃」, 「자전거」, 「전봇대」, 「오끼나와의 어린이들」, 「돌다리」, 「송화 날리는 날」, 「토마토」, 「산길」.

27) 「아카시아 꽃」, 「자전거」, 「오끼나와의 어린이들」, 「송화 날리는 날」, 「토마토」, 「산길」.

28) 「나무 간 언니」, 「전봇대」, 「돌다리」다. 「돌다리」는 1946년 『소학생』 발표 사실은 올바르나, 그것이 1940년 『조선일보』의 재발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소학생』 발표만 적고 있어 잘못을 저질렀다.

29) 「어디만큼 오시나」, 「공작」, 「봄 시내」는 원본 확인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고향의 봄」, 「어디만큼 오시나」, 「아카시아 꽃」, 「자전거」, 「고향바다」, 「전봇대」, 「밤 시내」, 「빨래」, 「돌다리」, 「밤중에」는 확인했다.

30) 『빨간 열매』를 엮으면서 이원수는 작품 게재지와 연도를 밝히고 있다. 『종달새』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따라서 같은 작품도 수정을 거치곤 했다. 그럼에도 나라잃은시대 후기 작품들에 대한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주간 소학생』이 1938년에 나온 매체로 엉뚱하게 적히기도 했다. 그 까닭을 “적지 않은 변동”과 “6.25의 손아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의도적인 착란이 아니라면 매우 불성실한 기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원수,

이제 이 글에서 범위로 삼고 있는 나라읽은시대 후기인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이원수가 쓴 작품을 확정지를 차례다. 모두 43편 정도로 갈무리할 수 있다.<sup>31)</sup> 이 시기 이원수의 작품을 가장 많이 갈무리하고 잇는 『전집 1』과 그 죽보기 기록, 그리고 연구자가 찾아낸 작품을 모두 모은 것이다. 이 가운데서 이원수 생전에 나왔던 『종달새』·『빨간 열매』·『너를 부른다』<sup>32)</sup>·『전집 1』에 기록은 있으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13편<sup>33)</sup>은 제외한다. 모두 30편이 남는다. 이 속에서 이원수 작품을 집대성한 가장 가까운 시기의 것인 『전집 1』에 미수록된 작품은 모두 12편이다. 미수록으로 남아 있었던 부왜작품이 5편, 이 글에서 발굴한 작품이 7편이다. 이 시기에 이미 발표했으나 그 사실을 광복기나 그 뒤에 알리지 않아 광복기 작품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재발표작 7편은 『전집 1』에는 실려 있으나, 죽보기에는 처음으로 오른다. 죽보기로만 본다면 나라읽은시대 후기에 이원수가 쓴 작품 30편 가운데서 19편이 이제까지 빠져 있었던 셈이다. 63.3%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그 30편 죽보기는 뒤에 올린 붙임 1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30편 가운데서 동시 「야옹이」, 「공」, 「밤」, 「기차」, 「언니 주머니」, 「저녁 노을」, 「봄바람」 7편은 이제까지 이원수 저작집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던 미발굴 작품이다.<sup>34)</sup> 그리고 7편은 광복기에 재발표한 것이다. 기존 이원수 관

「동시집을 내면서」, 『빨간 열매』, 아인각, 1964, 144-145쪽.

31) 『아이생활』 1943년 9월호에 「고향의 봄」이 채수록되었으나, 이것은 통계에서 뺐다.

32) 『너를 부른다』(창작과비평사, 1979)는 이원수가 영면하기 두 해 앞서 나온 동시집이다. 1945년 이전 작품으로는 「이삿길」, 「꽃피는 4월 밤에」, 「그림자」, 「낙엽」 네 편을 추가로 올리고 있다. 나머지는 『종달새』와 『빨간 열매』를 그대로 옮겼다. 추가 네 편 가운데서 「꽃피는 4월 밤에」와 「이삿길」은 원본 확인을 할 수 없다. 『전집 1』은 이들을 모으고, 새 작품을 더해 모두 159편에 이르는 작품을 싣고 있다.

33) 「아침 노래」, 「첫나들이」, 「보구 싶던 바다」, 「양말 사러 가는 길」, 「빨간 열매」, 「가없는 별」, 「꽃 피는 4월 밤에」, 「꽃밭」, 「자장 노래」, 「군밤」, 「종달새 노래하면」, 「웃음」, 「개나리꽃」이다. 이 가운데서 「꽃피는 4월 밤에」 한 편은 『너를 그린다』부터 더해졌고, 나머지는 『전집 1』에서 새로 올린 작품이다.

34) 이들의 뒹뒹이나 시사적 의의에 대한 해명은 실증적 파악에 초점을 둔 이 글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다음 기회에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이들이 부왜적 성격과는 거리를 둔 작품으로, 이원수 동시 가운데서도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런 문헌에서는 놓쳤던 사실들이다. 원본 확인에 따르면 이원수가 생시에 냈던作品集『종달새』·『빨간 열매』·『너를 부른다』에서 이 시기 작품 수록 사실이 올바르게 기록된 것은 고작 『염소』 한 편뿐이다.<sup>35)</sup> 그리 길지도 않은 7년 남짓한 짧은 기간, 곧 1938년에서 1945년 사이에 씌어진 작품 30편 가운데 『염소』 한 편을 덧붙여 29편이 게재 연월이건 매체명이건 그 정보 제공에 잘못을 범하고 있다. 30편 가운데서 12편은 아예 미수록된 작품이라는 참담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게다가 이 시기 작품 활동은 알려져 온 정보와 달리 나라잃은시기 이원수의 활동 가운데서 두 번째로 왕성했던 때였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일이다. 가장 꼼꼼한 이원수 관련 해적이어서조차도 아주 성글게 지나쳤던 자리다.<sup>36)</sup>

이제껏 본 바와 같이 『종달새』·『빨간 열매』 소재 작품의 게재 연월이나 매체명 정보, 작품 누락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음을 살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현상은 나라잃은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원수의 문학 활동이 뜸해지고 소극적이 되어간다는 느낌이다. 왜로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수탈이 극에 이르렀던 억압기, 이원수 또한 시대의 위축과 마찬가지로 고난스런 문학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암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다. 나라잃은시대 후기 이원수는 이제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매우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원수의 기억이나 개인 스크랩 또는 가까운 이의 자료 제공에 기대려냈을 작가 생전의作品集에서는 이들 작품의 발표 연대나 게재지, 또는 작품 자체의 실재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불명확하고 잘못된 상태로 알려져 있었다. 따

---

수작들이라는 점만을 짚어놓고자 한다.

35) 6편이 이원수 사후 낸 『전집 1』에서 새로 기워졌다. 「설날」, 「밤」, 「애기와 바람」, 「자장노래」, 「나무간 언니」, 「니댁는 노래」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그 기록에 잘못이 없는 작품은 「설날」, 「자장노래」 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가까운 유족들의 자료 제공에 크게 따른 결과로 보인다.

36) 첫 작품을 발표한 1924년부터 1945년까지 연도순으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해에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해는 1930년 23편이다. 그 다음 1940년이 12편, 1926년이 10편, 1929년이 9편이었다. 나머지 해들은 한 해 2-5편 정도 발표가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1940년도의 모습은 쉬 알 수 있다. 『전집 20』의 죽보기(433쪽)에서 “1940년 30세 동시 「종달새」, 「빨간 열매」 등을 발표하다”라 짧게 적혀 있는 자리다.

라서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은 어쩌면 고스란히 이원수가 져야 할지 모른다. 이 시기 새로운 발굴 작품 7편을 더하고, 30편에 이르는 왕성한 작품 죽보기 가운데서 29편에 대한 기록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어느 작가에게서나 조금씩은 엿볼 수 있는 이 시기 문학 활동에 대한 의도적 망각이나 착종 상태를 이원수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 이 시기 정보의 최초 제공자였던 이원수에게 오래도록 이 시기 기억에 대한 거부와 억압이 깊이 존재했다는 점을 미루어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 따라서 문제는 정보 기재 잘못이나 작품 누락에서 더 나아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재발표 사실의 은폐 문제로 건너선다.

## 2. 재발표와 기억 훼손

원본 확인을 거친 매체 활동을 잣대로 삼아 나라읽은시대 후기 30편에 이르는 이원수의 작품 활동에 대한 죽보기를 앞에서 마련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새로운 발굴 작품 못지 않게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 잠시 살폈던 바와 같이 광복기에 첫 발표 작품으로 믿어져 왔던 것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이 시기에 발표를 거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이원수는 광복기에 동화 갈래에 눈을 돌리기도 했으나, 광복 앞 시기부터 주류를 이루었던 동시 창작과 발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원본 확인이 가능한 작품 수만 40편을 넘는다.<sup>37)</sup> 그 가운데 7편이 재발표<sup>38)</sup>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 재발표 내용을 묶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37) 기록에만 따르면 그 수는 55편에 이른다.

38) 재수록이라 하지 않고 재발표라는 일컬음을 쓰는 까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들 작품을 실은 광복기 매체는 재수록을 하는 관행을 지니지 않았다. 둘째, 거기다 앞서 발표한 작품에 대한 전면적인 개고를 거친 뒤 새 작품처럼 발표하는 경우도 아니다. 셋째, 이들 작품의 재수록에 대한 어떠한 지표도 이원수는 생전에 남겨 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선 시기에 발표했던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도적인 망각과 은폐를 의심할 만큼 앞선 발표 사실과는 절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넷째, 이 시기 말고 따로 이원수가 작품을 재수록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다섯째, 비슷한 시기에 작품의 오류를 바로 잡아 다른 곳에 거듭 실는 중복 수록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태도의 뜻을 마땅하게 살리기 위해 재발표라는 용어를 이끌어 쓴다.

이름	첫발표 매체	재발표 매체	변경 내용
「전기제」	『소년조선일보』(1940. 2. 25.)	『소학생』 1948. 12월치	소품 수정
「애기와 바람」	『소년조선일보』(1940. 3. 17.)	『주간 소학생』 1946. 11.(32호)	소품 수정
「돌다리 노차」	『소년조선일보』(1940. 4. 28.)	『주간 소학생』 1946. 3.(6호)	「돌다리」로 제목 변경, 무수정
「밥시내」	『소년조선일보』(1940. 6. 9.)	1948년 『소년』 창간호	소품 수정
「니 닳는 노래」	『매일신보』(1941. 10. 26.)	『주간 소학생』 1946. 3.(7호)	중품 수정
「빨래」	『반도의광』 55호(1942. 6. 1.)	『주간 소학생』 1946. 3.(5호)	무수정
「어머니」	『아이생활』 9월호(1943. 9.)	『전집 1』 수록(『아동문화』 1948)	중품 수정

동시집에 빠진 미발굴작 7편과 같은 수인 7편을 이원수는 광복기에 재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을 합치면 1938년-1945년 사이에 발표한 동시 27편 가운데서 52%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셈이다. 재발표작만 따지면 26%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죄다 1940년에서 1943년 사이에 발표한 작품이다. 왜로에 의한 이른바 ‘국민총동원’과 ‘국민총력’이 저질러진 시기에 쓰여졌다. 민족문학의 고난스러운 억압기였으나 이원수 개인에게는 씻기 힘든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을 부왜작품 창작과 발표 사실이 가로놓여 있는 때다. 그러니 아무리 혼란한 광복기였다 하더라도 쉬 잊을 수 있거나 쉬 잊혀질 수 없을 가까운 과거요, 작품 활동의 실체였을 터이다. 이원수는 어떤 뜻에서인지 그 시기 발표 사실을 잊은 듯 재발표 형식을 빌리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작품의 외적 맥락을 손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재발표작도 있다.

①사악 삭 닳는다/웃니 아랫니/삭삭 닳는다/압니 어금니.//니 잘 닳는 아이는/하얀니 이쁜니/우슬째 반작 반작/보기 조와요.//써억씩 닳는다/햇님도 니 닳는다/산 우에서 병글 병글/우스면서 닳는다.//니 잘 닳는 햇님은/빛나는 하얀니/윈 세상 번적 번적/밝기도해요.

- 「니 닳는 노래」<sup>39)</sup>

②싸악 짹 닳는다./웃사이, 아래사이./싸악 짹 닳는다./앞사이, 어금사이.//이 잘 닳는 아이는/하얀사이, 이쁜사이./웃을 때 뽀작뽀작/보기 좋아요.

- 「이 닳는 노래」<sup>40)</sup>

39)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1941. 10. 21.

내적 문맥만 따지면 작품 ①은 어린이에게 구강 보건을 권하는 단순한 시다. 이를 잘 닦아 건강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해’가 “원 세상 번적 번적” 밝게 만드는 이치는 이 잘 닦기로 말미암은 것인 양 노래했다. 매우 적극적으로 이 닦는 일의 보람과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놓인 시대의 외적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손쉬운 풀이에만 머물기 어렵다. 이른바 ‘전시동원체제’ 아래 앞으로 ‘성전’에 나아가 건강한 ‘황민’으로서 목숨 바쳐 싸우게 될 이들이 ‘총후’ ‘소국민’, 곧 어린이이다. 그들이 지켜야 할 ‘신생활도’이자 ‘후생보국’의 한 내용을 착실한 이닦기는 품어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sup>41)</sup> ‘소국민’의 건강한 몸과 체력이 다름 아닌 ‘총후보국’인 셈이다. 그런데 재발표작 ②에 오면 ①에서 보이던 적극적인 이닦기 권장 의도가 많이 줄어들는다. 셋째 도막과 넷째 도막을 줄임으로써 이 잘 닦는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담기는 쪽으로 표현 가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축소 재발표에서 알게 모르게 이원수의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기록으로서도 이원수 스스로 나라읽은시대 후기에 썼던 작품의 재발표에 대하여 의도적인 망각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자들에게 의심 없이 거둬 받아들여졌다.

① 동시 「너를 부른다」를 비롯하여, 「송화 날리는 날」, 「토마토」, 「부르는 소리」, 「**밤중에**」 등은 해방 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생겨난 시들이다.<sup>42)</sup>

② 이 시기(광복기:글쓴이주)에 씌어진 동시 「개나리꽃」(1945)……(줄임)……「**밤중에**」, 「토마토」, 「성묘」, 「바람에게」(1948), 「들불」(1949)과 같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앞선 시기의 시적 성취를 넘어서는 리얼리즘의 대표 작품임을 금세 알 수 있다.……(줄임)……이원수 문학의 중핵이랄까, 가장

40) 『주간 소학생』, 7호,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3. 25.

41) 지나친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어린이, 곧 ‘소국민’의 몸에 대한 훈육과 규율장치의 전체화라는 쪽에서 볼 때, 나라읽은시대 후기야 말로 가장 결정적이고 뚜렷한 현실 정합성을 강조하던 때다.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일이다. 오 역, 『생활진로』, 생활과학사, 1945, 271-281쪽.

42) 이원수, 「나의 동시와 나의 생활」, 「너를 부른다」, 창작과비평사, 2003(개정판), 231쪽.

민감한 대목은 바로 해방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sup>43)</sup>

①에서 이원수 스스로 1943년작 『밤중에』를 “해방 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생겨난 시”라 분명하게 적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 ②의 연구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밤중에』는 “리얼리즘의 대표 작품”으로, “이원수 문학의 중핵”기인 “해방기”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의심할 바가 없다.<sup>44)</sup> 아마 이원수의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러한 후대의 혼란을 짐작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밤중에』는 그리 호락호락한 작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이 님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모든 어머니들의 ‘총후’ ‘근로보국’을 부추기는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다.

달 달 달 달/어머니가 돌리는/재봉소리 들으며//저는 먼저 잡니다/“어머니도 어서/주무세요, 네.//밤중에 잠이 깨면/달 달 달 달/아직두 어머니는 안 주무시고/밤중까지/뺨바누질 하시는구나//달 달 달 달//“왜 잠 깬니/어서/자거라./어서 자거라.//재봉 소리와/어머님의/고마우신 그 말씀/잠이 들면/꿈 속에도/들리웁니다.//달 달 달 달//“왜 잠 깬니/어서 자거라/어서 자거라.”

- 어머니, 『어머니』<sup>45)</sup>

이 작품을 두고 “리얼리즘의 대표작품” 가운데 하나로 불리울 만큼 ‘리얼’한 울림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나아갔을 자리가 어디인가는 뚜렷하다. 왜로 제국주

43) 원종찬, 「이원수 판타지동화와 민족현실 - 『숲속나라』를 중심으로,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0, 118-119쪽.

44) 이런 오정보는 거듭 오늘날까지 재생산되고 있다. 김종현도 『돌다리』, 『애기와 바람』 같은 재발표작을 광복기 대표작으로 다루고 있다. 김종현, 『해방기 이원수 동시 연구』, 『우리말글』 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396-398쪽.

45) 『아이생활』 9월호, 아이생활사, 1943, 17-18쪽. 『밤중에』의 발표 때 제목은 『어머니』다. 이름을 바꾸고 본문을 소폭 수정해 1948년 『아동문화』에 다시 실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집』에 실린 것에 도움 받을 수 있다. “달 달 달 달...//어머니가 돌리는/미싱 소리 들으며/저는 먼저 잡니다./책 덮어 놓고/어머니도 어서/주무세요, 네?//자다가 깨어 보면/달달달 그 소리/어머니는 혼자서/밤이 깊도록/잠 안 자고 뺨바누질/하고 계세요.//돌리셔던 미싱을/멈추시고//“왜 잠 깬니?/어서 자거라.”//어머니가 덮어 주는/이불 속에서/고마우신 그 말씀/생각하면서/잠들면 꿈 속에도/들려 옵니다.//“왜 잠 깬니?/어서 자거라/어서 자거라...” 『전집 1』, 120-121쪽.

의 '성전'에 몸바쳐 앞으로 '軍神'이 될 '지원병'의 어머니'로서 '총후보국'에 우뚝 서야 할 여성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까닭이다.<sup>46)</sup> 이렇듯 「이 님은 아이」나 「어머니」와 같은 작품의 재발표는 전혀 다른 외적 문맥 아래서 그것이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수의 재발표 행위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재발표가 이원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때 그 일을 권하거나 양해 사항으로 내락을 했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재발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간 소학생』과 『소학생』의 책임 편집자 윤석중일 것이다.<sup>47)</sup> 윤석중이 이원수의 문헌 작품에 대한 아쉬움에서 재수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잃은시기 거의 마지막까지 이원수와 함께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며 윤석중과도 가까웠던 박목월·윤복진과 같은 이의 작품 재발표는 『주간

46) 이 시를 읽을 때, '삿바느질'이라는 한 낱말에 초점을 두어, 가난한 어머니의 고된 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에 '삿바느질'이라는 낱말의 '삿'은 관행적으로 들어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에 있어서 낱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체 맥락 안에서 살펴야 한다. 나라잃은시기 '재봉틀'이라는 계곡 문물을 이용한 '바느질'이 품고 있는 귀족성은 분명하다. 이른바 '지원병'들의 '무운장구'를 비는 뜻에서 불길처럼 일었던 이른바 '천인침(千人針)' 의례와 나란한 '총후 근로보국'의 알레고리가 '삿바느질'이다.

47) 윤석중은 『半島の光』 55호(1942년 6.1)에서 '봄노래集'이라는 표제 아래 이원수의 작품이 실렸던 같은 지면에 남대우와 함께 작품을 실었던 적이 있다. 남대우는 「어부바」, 「우는 애」, 「우리 아가」, 「주먹빨기」, 「새벽」, 「아기 우슴」의 6편을 실었다. 이원수는 「빨래」, 「종달새」, 「봄바람」 세 편을 실었다. 윤석중은 「배꼽」을 실었다. 1941년 9월 10일 서울을 떠나며라는 부차텍스트가 붙어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원수의 광복기 재발표작 「빨래」의 경우는 윤석중의 눈에 이미 들었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윤석중은 광복 뒤 그 작품을 자신이 이끌었던 『주간 소학생』에다 실었다. 윤석중의 목인이 있었거나 내락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왜 재발표를 윤석중은 허락했을까. 윤석중은 이원수가 부왜농민시 「보리밭해서」를 화려하게 표제시로 발표했던 1943년 5월호 『半島の光』에서는 '가정가요집'이라는 표제 아래 다섯 편의 작품을 실기도 했다. 그 무렵 이원수의 부왜시 발표 사실을 아동문학인으로서 알 수 있었을 자리에 윤석중이 놓인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작품이 실렸으나, 윤석중은 자신의 작품이 『半島の光』에 실릴 그 무렵 섬나라에 유학차 머물고 있었다. 편집을 맡았던 『소년 조선일보』에서 손을 놓고 건너간 동경이었다. 그러나 이원수가 광복기 자신이 이끌었던 매체 『주간 소학생』이나 『소학생』에 지난 재발표 작품들을 내놓았을 때, 1940년-1943년 사이 작품 게재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소학생』이나 『소학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잡지에서도 재발표 형식을 띠는 보기가 없었다. 그러나 굳이 이원수 작품만 윤석중의 손밖에 있었던 잡지에까지 재발표 형식을 갖추곤 했던 일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라잃은 시대 후기 이원수 동시의 광복기 재수록은 윤석중의 양해를 얻었던 것인지 않았던 관계없이 이원수의 자의에 따라서, 충분한 작가적 자의식을 거친 행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재발표시 작품 제목을 바꾼 일이라든가 원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이원수 본인 의사에 따른 재발표임을 더욱 굳혀 주는 일이다.

둘째, 재발표에 대한 뜻을 이원수 스스로 크게 두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광복 혼란기에 잠시 발표욕에 사로잡혀 일어난 작가 이원수의 우발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재발표된 작품이 집중적으로 이원수 문학의 가장 예민한 자리일 수 있는 1940년과 1943년 사이 작품인 점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일찍이 써둔 작품이었으나 검열에 걸려 잘렸거나, 훼손이 너무 심해진 작품의 경우라면 광복기에 자유로운 첫발표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원수는 검열로 말미암은 몇 편의 삭제와 미수록 기록을 보이고 있다.<sup>48)</sup> 그러나 그러한 작품을 광복기에 발표하고 있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sup>49)</sup> 게다가 광복기 『종달새』를 낼 때 이 시기 작품을 애써 신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자신의 부왜작품이 실린 『半島之光』이라는 매체명은 그의 문학 생애 어떤 기록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금융조합 직원으로 생업을 꾸렸던 나라잃은 시대 후기 이원수에게는 아주 낮익었을 조선금융조합 기관지 『半島之光』이라는 이름이나 기억, 그리고 그에 실렸던 작품들에 대한 뚜렷한 흔대는 오래 의도된 긴장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광복기에 재발표한 7편 가운데서 4편이나 되는 작품이 『소년 조선일보』

48) 『신소년』, 『어린이』, 『별나라』에서 이원수 작품의 검열에 따른 삭제 사고나 미수록 사실을 밝힌 경우가 보인다. 이 경우 삭제 작품의 제목을 밝히고 있어, 그 뒤 발표 여부를 알게 한다.

49) 1947년 『새동무』 10집에 실은 「가시는 누나」는 『빨간 열매』의 기록이 맞다면 1929년도 『별나라』 소재 작품이다. 따라서 1920년대 작품이 광복기 공간에 재수록 또는 재발표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빨간 열매』에 실린 기록 자체를 믿기 어렵다.

에 실렸다는 사실에 무게를 줄 필요가 있다. 『소년 조선일보』는 모지인 『조선일보』에서 끼워내던 4쪽의 부록 별채판이었다. 그러니 거기에 실린 작품은 널리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어린이 회로에서만 유통되는 작품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 게재의 의의를 낮게 잡아 게재 사실은 묻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소년 조선일보』에 실린 작품을 간직하고 있지 못했고, 수록 사실을 잊어버린 탓에 재발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재발표된 최초 작품이 실린 1940년과 가장 늦게 재발표가 이루어진 광복 공간의 1948년까지는 멀리 잡아도 8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다. 의도적으로 게재 사실을 잊고 싶었거나 게재 자체를 묻어버리고 싶은 심리적 충동을 갖지 않았다면 재발표를 할 리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재발표는 『소년 조선일보』에 머물지 않고 『아이생활』·『半島의光』·『매일신보』 게재 작품으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나라잃은시대 후기 대표적인 한글 문학 매체가 거의 걸린다. 1940년대 이원수가 부왜작품을 발표했던 시기, 또는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시기의 작품 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망실 의욕이 컸던 까닭에 재발표라는 기형적 행위가 일어났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sup>50)</sup>

저녁놀이 곱-다/비단보다 곱-다//밤-아, 오지마/이쁜 놀이 죽는다.

- 이원수, 「저녁놀이」<sup>51)</sup>

이 글로 알려지게 된 작품 가운데 하나다. 비록 김영일의 단시풍을 닮고는 있지만, 나라잃은시대 후기 민족 수탈의 폭압 아래서도 글쓰기를 버릴 수 없었을 이의 미학적 절망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원수는 이런 작품 곁에 「지원병을 보내며」, 「낙하산」과 같은 부왜 동시를 아울러 남기면서 다른 부

50) 아마 광복기 부쩍 소년소설이나 동화 쪽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기 시작했던 이원수의 모습이나, 일찌감치 그리고 널리 알려졌던 이원수라는 이름에서 나아가 동원(冬原)이라는 호를 빌린 새로운 문필 행위가 일어난 데에도 어렴풋하지만 생각을 넣어 보아야겠다. 동원, 곧 겨울 들판이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원수의 호에는 아마 자신의 부왜 작품으로 말미암았을 아픈 자책의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은 아닐까. 끝내 숨길 수 있다면 좋았을 일을 간직한 채, 새롭게 거듭나고 싶었을 복잡한 마음 자리를 짐작하게 하는 이름이다.

51) 『소년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40. 6. 30.

왜 아동문학인들과 길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나라잃은시대 후기 이원수의 문학 활동은 광복기에 이르러 과거에 대한 의도적인 기억 상실과 누락, 그리고 기억 혼란에 더해 광복기 재 발표라는 기형적인 매체 활동으로 몰들어 있음을 살폈다. 그러나 그 밑자리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장 욕된 문학이 함께 놓인 이 자리는 개인 이원수의 기억이나 문학사 속에서나 거의 지워진 바 되었다. 이 일은 단순히 연구자들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의도적이거나 강한 심리적 지향에 의해 떠밀려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광복기에 서서 볼 때 지나간 가까운 시기의 불편하고도 부끄러웠을 시간과 작품들에 대한 정보 혼란과 누락, 특별히 이원수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었을 그 시기 작품의 적극적인 재 발표라는 두 매체 활동에서 이원수 문학의 남다른 자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일찌감치 『고향의 봄』으로 마련된 명성의 소비와 재구성에만 관심을 가져도 행복했을 이원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품’ 발표를 마다할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보다 문필가로서 강한 자의식과 생존 방식을 배웠을 그다. 다만 나라 말글이 사라져 가고 민족에 대한 억압이 극에 이르렀던 나라잃은시대 끝자락까지 나아간 그의 문필 활동이 부왜문학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데에 이원수 문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개량성과 기회주의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경남·부산지역 다른 아동문학인이 겪었던 좌절의 길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쪽이다.

김병호·이구월·손풍산과 같은 이들은 부왜작품을 써서라도 지켜야 할 동시인으로서 명성이나 문학적 헌신이 없었던 것일까. 오히려 이념으로, 실천으로 치열했으나 왜로의 제도적 핍박에 고스란히 내몰렸던 1920-30년대 카프 아동문학의 냄새를 덮는 일만으로도 나라잃은시대 후기 내내 한 몸 버티기 어려웠을 그들이다. 광복 된 새로운 세상 앞에서 이원수가 지닌 고심은 그들과 달리 자신의 부끄러운 문학적 과오에 대한 관리도 한몫 했을 것이다. 마산·함안 지역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도 지명도 높은 문학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그가 마침내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도 이 대목에서 예사롭지 않게 여겨진다.

거기다 오래도록 걸들기만 했던 좌파 아동문단에 확실히 몸을 담은 점, 그리

고 동화와 같은 산문에도 적극 나아가 문학적 쇄신을 꾀하기 시작했던 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갱신을 꾀하고자 했던 한 가지로 수렴한다. 광복기가 문인 이원수 개인에게 문제적 공간이 된 것은 스스로 마련한 요인이 더 커 보이는 까닭이다. 아마 이원수에게 광복된 새 세상은 다른 많은 문학인들과 마찬가지로 갖은 혼란과 역사의 착종으로 말미암은 시대의 추위가 극심한 시기였겠다. 그러나 더 아래 마음바닥의 추위를 덮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뒤 오랜 그의 문학이 지닌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두 추위 사이에 서서 그것과 싸우고 맞서면서 삶의 더위를 힘껏 쫓아간 데서 찾을 수 있을 듯싶다.

### Ⅲ. 남대우와 지역작가의 자긍심

#### 1. 필명의 확장과 지역 정체성

1913년 경남 하동에서 나서 하동에서 열렬히 문학 활동을 하다 역사의 희생자로서 숨을 거둔<sup>52)</sup> 이가 남대우다. 그는 이제까지 아동문학계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작가다. 유족 손으로 엮어낸 유고집 『우리동무』(정운, 1992)가 나온 뒤 문학의 대강이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변변한 작가론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김수복<sup>53)</sup>이 거의 유일하다. 경남·부산 지역문학인으로서 그의

52) 남대우는 광복 뒤 하동문화협회를 맡아 열정적으로 일하다, 1948년 10월 19일 이른바 ‘여순반란사건’, 곧 술자여순인민봉기(戊子麗順人民蜂起)의 진압 과정에 10월 28일 하동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지역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머물며 기자 생활을 하다, 1950년 전쟁 직전 국민보도연맹 학살폭거로 말미암아 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른바 국민보도연맹학살폭거로 고초를 겪은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은 남대우 말고도 권환, 이주홍, 손풍산, 이구월, 김병호와 같은 이들이 있다. 김정환, 정진엽도 이에 든다. 앞의 사람들은 카프 문단 인사다. 뒤의 두 사람은 광복기 뒤늦게 좌파에 몸담았던 이들이다. 박태일, 『경남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48쪽.

53) 김수복, 『남대우론/공공한 삶의 인식과 새 시대의 감격』, 『한국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83-97쪽.

면모도 박태일<sup>54)</sup>에 이르러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남대우는 나라잃은시대 1927년 무렵부터 투고문단에 이름이 올라다 1930년부터 활발한 작품 발표를 시작했다. 1934년 등단 형식을 거쳐 1945년 을유광복에 이르는 시기까지만 두고 보더라도 170편을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광복의 기쁨이 나라 곳곳에서 떨치던 1945년과 1946년 누구보다 먼저 그 감격을 담백 담은 동시집 두 권을 나란히 세상에 내놓은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그리하여 동시집을 포함해 모두 90편에 이르는 작품을 폭발적으로 광복기에 내놓았다. 경남·부산지역은 물론 나라잃은시기와 광복기를 거치는 동안 나라 안에서 가장 많은 작품 활동을 한 사람 쪽으로 손꼽힐 만한 이다. 이 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잃은시대 후기만 하더라도 그는 91편이나 되는 작품을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수는 확인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sup>55)</sup> 이제 이 시기 작품 죽보기를 붙임 2로 확정해 이 글 뒤에 올린다.

동시·동화·소년시·소년소설·유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래 창작이다. 발표 매체 또한 다채롭다. 나라잃은시대 후기 한글로 된 주요 매체는 죄 발표 지면으로 활용하고자 한 셈이다. 가깝게는 진주 지역매체인 『남선공론』·『영남춘추』는 물론 압록강 너머 북방에서 나온 『만선일보』·『카토릭소년』까지 걸친다. 『동아일보』도 빠지지 않았다. 나라잃은시대 가장 늦도록 나왔던 아동지 『아이생활』에서도 남대우는 빠지지 않는다. 하동에서 『동아일보』 지국과 『만선일보』 주재기자까지 맡은 데다, 서점까지 운영했던 터였다. 누구보다 매체에 대한 접근이 자연스러웠으리라. 작품 투고에 대한 정보에서도 남다른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남대우는 왜로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암울했던 시기에 특별한 종교계 지원이나 학연·지연과 같은 연결망이 없는 데에도 남달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54) 박태일, 「경남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33쪽. 43-45쪽. 박태일, 「나라잃은시대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174-179쪽.

55) 남대우는 자신의 발표 작품을 묶음철로 간수해 두었다. 그러면서 손수 신린 곳과 때를 적어 두었다. 그에 따라 유고집 『우리동무』가 묶여 나왔다. 유고집에 작품은 실려 있으나, 실린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적지 않다. 그들 가운데서 기록의 개연성이 높은 것은 그대로 따랐다. 유고집에 실린 목록만을 따르면 작품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있었다. 이 점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역에 머물지 않는 매체 향유의 이점을 살리면서, 또는 살리기 위해 문학 매체 가까이에 뜻을 두면서 지역문화인으로 자라나고자 한 의욕을 보인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 안팎 문인들과 적극적인 문단 교류를 피하지 않은 흔적도 곳곳에서 눈에 뜨인다.<sup>56)</sup> 1920년대 후반 습작기 투고문단에서부터 하동에 뿌리를 내린 채 꾸준히 닦아 온 그의 문재는 1930년대와 1940년대 더욱 힘을 받아 왕성하게 꽃필 수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품 발표에 있어 쓴 필명<sup>57)</sup>이 유달리 많다는 점이다. 보통 작가 경우 많으면 서너 개에 그칠 필명이 1938년에서 1944년에 걸치는 짧은 7년 동안에만도 12개나 보인다.<sup>58)</sup> 나라읽은시대 후기 남대우는 바깥의 정세 악화, 발표 매체 축소와 같은 문학사회의 변동 앞에서 고심이 깊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 고심은 무엇보다 하나의 작가적 정체성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 수 없을 바깥 세상에 열정적인 글쓰기로 대거리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이미 기성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젊고 재능 충만한 한 작가의 폭발적인 작품 발표와 다양한 필명 선호는 자신에게 닥쳐온 문학사회의 위기와 거꾸로 맞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쓰고 있는 필명의 뒤편이를 두루 살피면 더욱 환하게

56) 앞서고 뒤선 여러 지역 문인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했던 흔적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김대봉·조연현과 같은 경남지역 『맥』 동인과 찍었던 사진이나, 앞선 아동문학인 김병호를 만나기 위해 김해로 찾은 뒤 남긴 작품들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한정호, 『포백 김대봉 전집』, 세종출판사, 2005, 화보.

57) 아호·별호·예명·필명·차명까지 모두 묶어 필명으로 일컫는다. 남대우의 경우 그것을 꼼꼼하게 나누어야 할 정보를 남기지 않은 쪽이다.

58) 남대우는 본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러나 마흔에도 이르지 못한 나이로 이승을 뜰 때까지 스무 해 남짓한 문학 생애 동안 모두 20개에 이르는 필명을 골라 썼다. 네 개를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희귀한 경우도 있다. 남대우·하동 남서우·하동 남산초인·지리산인에 걸치는 이름으로 민요와 유행가를 발표하고 있는 1936년 『영남춘추』 8월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1936년 『시대상』 8월치에서는 동시 네 편을 남산·남우·남서우라는 세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한 필명 사용은 1935년에서 1940년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940년을 넘어서면서 남대우·남서우를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1945년 광복 뒤부터 영면할 때까지 기간에는 남대우라는 본명으로 한결같았다. 작가적 정체성을 하나로 굳히는 모습인 셈이다.

집작할 수 있는 일이다. 南大祐·南曙宇·南相昶·南星·南山樵人·南洋草·金永鈺·劉龍炫·申盟德·申孟元·종달새·金貞姬에 이르는 12개가 그것이다. 이들은 크게 다섯 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인 자신의 혈족과 관련된 이름이다. 김정임·김영우·유용현이 그것이다. 김정임은 남대우의 아내다. 김영우는 남대우의 처남이며, 남대우 활동 무렵 하동읍에서 함께 머물렀던 소학교 학생이다. 유용현은 남대우 시인의 외가 외사촌이다. 발표 당시 소학교 학생이었다. 모두 시인과 멀게 가까이 하동에 터붙여 살고 있었던 이다. 둘째, 하동과 관련된 지역 이름이다. 여기에는 남산초인·남양초가 있다. 남산은 하동읍에 있는 산이다. 남대우가 즐겨 오내리던 곳이다. 그러니 남산초인은 남산과 이어진 이름이다.<sup>59)</sup> 남대우 스스로 지역 문화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지를 지역 안팎으로 한껏 들낸 이름이다. 셋째, 자신의 본명인 남대우에 뿌리를 둔 이름이다. 남서우·남성이 그것이다. 넷째, 예명에 가까운 이름이다. 종달새가 그것인데 주로 유행가 작사자로 나설 때 붙인 이름이다. 다섯째, 불명인 것도 있다. 신맹원·신맹덕·남상호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남대우가 보이는 명명 버릇으로 보면 하동에서 가까이 지냈던 지인일 것이 틀림없다.

남대우가 끌어 쓴 필명의 큰 뼈대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 지역명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시인과 사회적·문화적·정서적 동질성으로 묶여 있는 구성 요소다. 가족 상상력을 포함하는 지역 상상력에 뿌리를 둔 셈이다. 개별 시인 남대우가 아니라, 하동시인 남대우로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을 묶게 만듦으로써<sup>60)</sup> 지역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기적으로 발표 기회의 점증이라는 가능성뿐이다. 그러나 이 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작품성이 전제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지역 안쪽으로는 지역 대표성의 확보다. 지역사회의 인정이 무엇보다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 둘은 지역 바깥으로는 하동의 지역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안쪽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 의욕

59) 이 시기에는 쓰임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필명인 ‘蟾江畔人’, ‘智異山人’도 마찬가지로 하동을 대표하는 지역명을 끌어쓴 경우다.

60) 남대우는 1930년대 격렬했던 계급주의 아동문예지인 『신소년』과 카프 아동기관 지격이었던 『별나라』에서 작가로서 공식 이름을 얻는다. 카프문학의 억압과 해체 과정을 거친 다음 시기, 그에게서 나타나는 바 남대우의 필명을 빌린 복수작가 현상은 문학적 방향 모색의 한 측면을 지닌다.

을 부추기는 근본 역할을 바꿀 만한 조건이 아니다.

뿌듯한 한 이름으로 문학사회 안쪽의 작가적 명성을 키우고자 하는 근대적 명성 확산의 길을 멈추고, 남대우는 안팎의 어려운 정세나 환경 아래서 지역적 정체성을 빌린 작품 발표 행위를 거듭하였다. 그것이 나라읽은시대 후기 가장 많은 작품 발표와 가장 많은 필명 사용이라는 특징적인 모습으로 온축된다. 게다가 그가 발표했던 매체나 갈래 영역 또한 그가 지역사회에서 떠맡았을 문화·사회적 위상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물론 이 일은 썰물 빠지듯 줄어들었던 매체 환경 아래서 작품의 수월성을 거듭 지켜내기 위한 창조적 긴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원수와 달리 현재까지 부왜 문학에서 자유롭다. 단순한 작가적 명성이나 발표욕에 몸을 내맡기지 않았던 남대우의 고심 어린 노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을유광복이 되자 누구보다 먼저 그것도 지역 하동에서 하동문화협회를 이끌면서 당당하게 두 권의 동시집 『우리동무』를 잇달아 낸 이가 남대우다. 그것도 지난날에 써두었던 작품을 엮어내는 일이 중심이었던 다른 작가들과 달리 신작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집이다. 창작 날짜를 또박또박 기록하여 작품성으로서보다 기록성에 더 초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두 동시집은 광복 뒤 두어 달 동안 일어났던 하동의 지역사로 모자람이 없다. 시인이 겪었을 다양한 가족 경험,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감흥을 꼼꼼하게 동시라는 갈래에 담아낼 수 있었던 열정은 그만큼 이채롭고, 그로 말미암아 복원된 지역 현실은 그만큼 값지다. 나라읽은시대 여느 유명 문학과 달리 각별한 문학 권력도 누리지 못한 채, 지역시인으로서 닦아온 자긍심과 열정이 자연스레 마련한 일이다. 명망가 이원수의 광복기 재발표라는 퇴행적인 명성 복제 형식과는 다른 길에서 필명 확장과 광복기 신작 동시집 출간으로 이어지는 남대우 시인의 창조적 열정과 지역적 자긍심이 있다.

## 2. 중복발표의 열정

필명 확장 현상과 더불어 남대우의 매체 활동에서 짙어두어야 할 다른 한 가지 특이성은 중복발표 현상이다. 이것은 바뀐 시대 상황 아래서 지나간 시대의 작품 발표 사실 자체를 무화시키고자 했던 이원수의 재발표와 다르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매체에 동종의 작품을 올리는 모습을 일컫기 위한 말이다. 남대우의 경우 이 일은 이 글에서 범위로 삼고 있는 나라잃은시대 후기에 앞선 때부터 한 차례 그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① 뻘요뻘요 병아리/노랑노랑 병아리/  
 울망졸망 사이 조흔 여러 형제가/이리 기웃 저리 기웃 기웃거리며/엄마엄  
 마 따라서 놀러 갑니다//  
 뻘요뻘요 병아리/복실복실 병아리/  
 울망졸망 의조흔 여러 형제들/이리 대둥 저리 댓둥 댓둥거리며/ 뻘요뻘요  
 노래하며 놀러 갑니다

- 「병아리」<sup>61)</sup>

② 씨요 씨요 병아리/노랑 노랑 병아리  
 울망졸망 사이 조흔 여러 형제가/이리 기웃 저리 기웃 기웃거리며/엄마엄  
 마 팔아서 놀러 갑니다//★//  
 씨요 씨요 병아리/노랑 노랑 병아리  
 울망졸망 의조흔 여러 형제들/이리 댓둥 저리 댓둥 댓둥거리며/씨요 씨요  
 노래하며 놀러 갑니다

- 「병아리」<sup>62)</sup>

같은 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이 나란히 실렸다. 두 작품 사이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①의 둘째 도막 둘째 줄 “복실복실”이 “노랑노랑”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훨씬 시맛을 살렸다. ‘ㅸ’이나 ‘ㄸ’과 같은 겹닿소리 쓰임은 두 매체의 표기 방침에 따른 일일 것이니 문제 삼을 바가 없겠다. 따라서 두 작품은 같은 작품을 한 군데만 손질한 다음 아울러 두 매체에 보낸 셈이다. 이 무렵은 이미 추천이라는 형식을 거친 뒤였다. 그럼에도 작가적 자의식은 없다. 그리고 작품 「병아리」는 세 해 뒤 외사촌의 이름을 빌려 다시 한 번 그 모습을 드러낸다.<sup>63)</sup> 이렇듯 흔하지 않은 중복발표는 나라잃은시대 후기에 「병

61) 하동 서우학인, 「병아리」,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6. 5. 10.

62) 하동 남우, 「병아리」,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1936. 6. 28.

63) “뻘요뻘요 병아리 어린 병아리/동무하구 놀러 나왔다/길 일었대요//노랑노랑 병아리 어린 병아리/엄마랑 동무 찾아 다니다가/집도 일코 헤맸답니다.” 유용현, 「병아리」,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9. 6. 18. 하동읍내소공교 3 남. ①과 ②가 본이 되어 마련된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남대우의 작품이 분명한가에 대

아리」를 비롯하여 모두 네 차례 이루어졌다.

갈래	이름	제목	매체	날짜	비고
(동요)	남대우	『단풍잎』	『동아일보』	19391105 <sup>64)</sup>	『동아일보』 19351215
(동요)	남대우	『은구슬 금구슬』	『동아일보』	19380515	
(동요)	劉龍炫	『병아리』	『동아일보』	19390618	하동읍내공소교 3남
(동요)	남대우	『은구슬·금구슬』	『동아일보』	19391008 <sup>65)</sup>	『동아일보』 19380515 중폭 개고
(동요)	남서우	『자장가』	『남선공론』	194103	4장으로 된 작품
(동요)	남대우	『자장가』	『매일신보』	19411019	2장으로 축소 수정

이 네 유형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시기에 발표했던 작품을 손질해 비슷한 중앙 매체에다 올리는 경우다. 「병아리」·「단풍잎」·「은구슬·금구슬」이 이에 든다.

① 빨가코 노라케/물든 단풍잎/쌀쌀한 겨울을/눈앞에 두고/엄마품 그리운 품/떠나기 실허/바람결에 발발발발/울며 땁니다//빨가코 노라코/고운 단풍잎/심술쟁이 겨울을/눈앞에 두고/엄마품 따스한 품/참아 못 떠나/바람결에 하늘하늘/몸부림쳐요

- 「단풍잎」<sup>66)</sup>

② 一

빨가코 노라케 물든 단풍잎/쌀쌀한 겨울을 눈앞에 두고/  
엄마품 따스한 품 떠나기 실허/바람결에 파르르 울며 땁니다//

二

노라코 빨가코 고운 단풍잎/심술쟁이 겨울을 눈앞에 두고/  
엄마품 정다운 품 참아 못 떠나/바람결에 발발발 몸부림쳐요

- 「단풍잎」<sup>67)</sup>

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작품 수준이 앞의 둘에 견주어 나아진 점이 없다. 오히려 앞의 두 작품을 흉내낸 분위기다. 그러나 남대우가 손수 철한 작품철에서 이 작품을 자신의 작품들과 한 자리에 놓고 있어 다른 작품으로 볼 터무니가 약하다. 유용현은 남대우의 어린 외사촌으로서, 필명 확장에서 드러나는 방식대로 친인척 이름을 끌어 쓴 경우다.

64) 1935. 12. 15. 『동아일보』 남서우 「단풍잎」의 수정 개고 재발표.

65) 1938년 작품에 대한 대폭 개고 뒤 재발표.

66) 南曙宇, 「단풍잎」,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35, 12, 15. 같은 지면에 하동 申孟元으로 「내 시계」를 발표하고 있다.



들었다. 첫째 셋째 도막으로 내용을 줄이고, 시줄을 보다 가지런하게 가꾸었다. 짜임새가 단단해졌다. 자기 절제를 거친 흔적이다. 고향 가까운 진주 지역매체에 한차례 발표한 작품을 다시 손질해 중앙매체에 올린 경우다. 쉬임없이 문학 속에서 문학과 더불어 생각하고 다듬으며 문학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한 모습이다.

이러한 중복발표가 작가적 명성이라는 쪽에서 하동시인 남대우에게 안겨준 이점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남대우라는 이름이 익은 지역 바깥 문학사회에서는 남대우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하동 남서우’나 ‘남우’니 하는 필명은 본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주체할 수 없을 작품열은 그에게 많은 양의 다매체 발표와 복수 갈래 발표, 나아가 중복발표도 마다하지 않는 작품 투고를 거듭 밀어붙이게 한 셈이다. 기성문인으로 당선이나 추천 형식을 몇 차례 거친 문학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낮익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역 바깥으로 특별한 연출망이나 문화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한 재능 있는 지역작가가 문학적 인정 제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부추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일 수 있다는 데에 뜻이 있다. 중요한 일은 열심히 쓰는 것이다. 시대와 본인이 받아들일 만한 매체를 빌려 발표를 거듭하는 열정이다. 그것이 중복발표라는 모습에 간추려져 있는 셈이다. 이 일은 물론 그들 매체 편집진의 문학적 감식력이라는 제도적 시선을 이겨낼 만한 작품의 수월성을 그가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남대우는 나라읽은시대 후기 누구보다 열렬한 발표 의욕과 지역적 자긍심을 지켰은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이다. 글 쓰는 일 자체가 위태로웠던 시대였으나 그는 그 시대 막바지까지 작가로서 성실했다. 그러한 자긍심과 성실성이 광복을 맞이하자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두 권의 동시집을 지역에서 펼쳐낼 수 있게 이끌었다. 지나간 시기 문학 활동에 대한 기억 억압과 퇴행적 문단 활동이라는 혼란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광복기 이원수와 나뉘는 광복기 남대우의 당당함이 거기에 있다.<sup>70)</sup> 잘 다듬어진 기존 아동시의 상투적 문화형에 대한 추체협

70) 남대우 아동문학에 대한 내용 분석은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잊혀졌던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 남대우는 나라읽은시대 후기 그 누구도 담아내지 못했던 심상하고 생생한 실감·실정에 뿌리를 둔 농촌 아동문학을 열어나간 사람이다. 이른바 ‘내선일체’를 향한 제도적 억압과 식민지 ‘소국민’의 덕성 함

에만 기대거나, 미학적 완성도를 앞세우면서 허리 아래는 부왜문학에 담글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과 벗어난 자리에 폭발적인 작품 발표와 필명 확장으로 뒷받침되는 남대우의 특이성이 있다.

남대우는 하동의 시인이고 광복 이후 뛰어난 활동이 예상되었던 한국의 아동문학인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 나이 마흔을 넘기지도 못한 채, 어지러운 역사의 골짜기에다 문학적 재능을 묻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가 그를 죽였다는 점에서 시인으로서 그의 비극이 너무 크다. 문학사가 그를 잊었다는 점에서 개인 남대우의 불행은 너무 깊다. 이제까지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가 잘못 쓰여진 바로 말미암아 작가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큰 빛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을 맨 처음 돌려 받아야 할 사람이 남대우인지 모른다.

#### IV. 마무리

나라잃은시대 후기도 다시 막바지로 나아가고 있었던 1943년 9월치 『아이생활』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사에서 볼 때 기억해 두어야 할 만한 자리다. 세 사람이 동시 신작을 싣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둘이 경남·부산지역 문인인 까닭이다. 이미 5편에 이르는 부왜작품을 내놓은 바 있는 이원수와 하동에서 폭발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던 남대우다.<sup>71)</sup> 이원수 작품 「어머니」는 이른바 ‘성전’ 곧 태평양침략전쟁에 나가 힘껏 싸우거나 그 뒤를 도와주는 일에 모든 ‘국민’이 ‘황국신민’으로서 ‘총력’을 다할 책무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시기, 모든 어머니의 ‘근로보국’을 부추기는 뜻에서 멀지 않은 작품이다. 남대우가 쓴 「산울림」은 인적 드문 산골에서 하릴없이 메아리와 ‘거 누구냐’며 막막한 자문자답을 거듭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농촌 서정시다. 이 두 시인의 사뭇 다른 두 모습만큼 그 무렵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이 놓여 있는 자리를 고스

---

양이라는 전체주의 문화 폭력 아래서 발표 역량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지역시를 힘껏 이끌었다

71)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무렵 대표적인 부왜 아동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영일이다.

란히 보여주는 문학 풍경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문학인들은 문필 활동을 접고 이 두 자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학적 익명공간에 묻혀 있었다.

이 글은 나라읽은시대 후기 작가는 글로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명제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매체 활동에 대한 실증적 해명에 이르고자 한 것이다. 이원수에게서 드러나는 특이성은 크게 둘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문학에 대한 기억 혼란과 착란이 뜻밖에 심하다는 점이다. 각별히 이 시기와 가까이 맞닿아 있는 광복기의 동시집 발간과 매체 활동에서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1947년 『종달새』에 실려 있는 33편의 작품 가운데서 31편이 그 게재 연월 기록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 일은 1964년에 낸 『빨간 열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앞 시기 작품 보존의 미비와 망실은 여느 작가에게나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원수 경우에는 과거 기억에 대한 복잡하고도 긴장된 자의식의 결과로 보인다. 둘째, 이 시기 발표 작품들을 광복기에 재발표하고 그것을 첫발표로 기정 사실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작품 발표에 쫓긴 나머지, 또는 남다른 발표욕으로 말미암은 우발적인 결과라고 보기에는 힘든 기형적인 매체 활동이다. 광복 이후 이원수의 문학은 이러한 두 문제가 보여주는 작가적 긴장과 혼란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이원수 담론의 파행성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 이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대우는 이 시기 여느 사람과는 다른 면모를 각별하게 보여준 작가다. 매체 활동의 특이성은 크게 둘로 줄여 볼 수 있다. 첫째, 한글 발표 매체가完연히 줄어들고 발표 환경이 어려워던 이 시기에 12개나 되는 필명을 끌어다 쓰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과 자긍심을 지역 안팎 매체를 빌려 들내고 있다. 지연적 상상력에 뿌리를 두고 마련된 이러한 필명 확장 현상은 단일한 이름을 한결같이 보여줌으로써 문학사회 안팎의 명성을 극대화하고 이름의 명목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근대문학 일반의 작가적 정체성 확립 방향과는 벗어난 길이다. 작품 창작에 대한 열정과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된 일이었다. 둘째, 그 본보기가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종의 작품을 다른 매체에 내놓은 중복발표 현상도 있다. 이 일은 창작적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문학에 대한 남

다른 열정을 지역 안팎에서 확인 받고자 했던 남대우다운 방법이다. 이러한 두 특이성을 바탕으로 남대우는 특별한 문화자본이나 문단 권력을 갖지 못한 하동 지역문인이었음에도 광복 초기 신작 동시집 두 권을 세상에 화려하게 내놓으면서 지역 생활사까지 재구성해 내는 기동성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잃은시대 후기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광복기를 지나며 누구보다 뜻 있는 활동이 기대되었던 작가 남대우는 거대 역사의 횡포로 지역에서 살해당하고 국가 문학사에서 잊혀지기에 이르렀다.

이 글로 말미암아 나라잃은시대 후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으로서 이채롭고 문제적인 두 사람, 이원수와 남대우의 이 시기 작품 활동에 대한 족보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원수가 30편이고, 남대우가 91편이다. 이원수의 30편 가운데서 29편이 이제껏 게재 연월이나 매체 정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새로 발굴한 작품이 7편, 곧 「야옹이」·「공」·「밤」·「기차」·「언니 주머니」·「저녁 노을」·「봄바람」이다. 광복기 재발표작 또한 7편이었다. 남대우의 작품은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제 이 두 시기 두 문학인에 대한 연구의 디딤돌이 비로소 놓였다 하겠다. 이원수의 경우, 기존의 명성과 담론을 잠시 내려놓고 새롭게 살펴야 할 자리가 뜻밖에 너무 넓다는 사실이 다시 알려진 셈이다. 남대우의 경우, 이제껏 내버려두었던 그에 대한 연구다운 연구를 이끌어내어 마땅한 자리로 올려놓아야 할 일이 무겁고도 시급하게 놓여 있음이 강조된 셈이다. 그리고 어느 쪽부터 시작하든 광복 이후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정착과 전개 과정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그 일이 필수적일 것임에는 틀림없다.

주제어 : 지역문학, 아동문학, 경남지역, 부산지역, 경남·부산지역, 이원수, 남대우, 마산, 하동, 지역 정체성, 재발표, 중복발표, 명성의 사회학, 필명

(붙임 1) 이원수 작품 죽보기(1938-1945)

갈래	제목	매체	연도	비고
(동시)	『보-야, 넌네요』	『소년』 10월치	1938. 10.	『종달새』 수록. 1938. 8. 월 오류
(동시)	『설날』	『소년』 1월치	1939. 1.	『전집 1』 수록
(동시)	『고향바다』	『소년』 4월치	1939. 4. 1.	『빨간 열매』 수록. 1937. 연대 오류
(동시)	『부형이』	『소년조선일보』	1939. 12. 17.	『종달새』 수록. 1935. 10. 연대 오류
(동시)	『밤눈』	『소년』 1월호	1940. 1.	『전집 1』에 『밤』으로 수록. 연대 오류
(동시)	『야옹이』	『소년조선일보』	1939. 1.	발굴작
(동시)	『염소』	『소년조선일보』	1940. 1. 21.	『종달새』 수록. 1940. 1.
(동시)	『눈오는 밤』	『소년조선일보』	1940. 1. 28.	『종달새』 수록. 1938. 11. 『밤눈』 <sup>72)</sup>
(동시)	『전기째』	『소년조선일보』	1940. 2. 25.	『빨간 열매』 수록. 1935. 연대 오류. 재발표작
(동시)	『애기와 바람』	『소년조선일보』	1940. 3. 17.	『전집 1』 수록. 1946년 재발표작
(동시)	『안즌뱅이꽃』	『소년조선일보』	1940. 3. 31.	『종달새』 수록. 1939. 12. 연대 오류
(동시)	『돌다리 노차』	『소년조선일보』	1940. 4. 28.	『빨간 열매』 수록 『돌다리』. 1946년 재발표작. 『전집』 『정검다리』
(동시)	『공』	『소년조선일보』	1940. 5. 25.	발굴작
(동시)	『밤시내』	『소년조선일보』	1940. 6. 9.	『빨간 열매』 1937. 연대 오류. 록, 1948년 재발표작
(동시)	『저녁노을』	『소년조선일보』	1940. 6. 30.	발굴작
(동시)	『자장노래』	『소년』 7월호	1940. 7. 1	『전집 1』 수록
(동시)	『기차』	『소년조선일보』	1940. 7. 28.	발굴작 <sup>73)</sup>
(동시)	『나무 간 언니』	『소년』 10월호	1940. 10. 1.	『전집 1』 수록. 『조선일보』로 게재지 오류
(동시)	『언니 주머니』	『매일신보』		1941. 10. 19. 발굴작
(동시)	『니 닳는 노래』	『매일신보』	1941. 10. 26.	『전집 1』 수록 <sup>74)</sup> 1946년 재발표작

72) 『밤눈』으로 개명해 『종달새』에 실은 작품이다. 그러면서 게재 연대는 1938. 11. 로 잘못 올렸다. 『종달새』에 실린 『눈오는 밤에』(1931.12)는 『신소녀』 1934년 2월치에 『눈오는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작품이다. 『전집 1』에서는 『눈오는 밤에』라는 제목을 그대로 쓰고 ‘1931. 『어린이』’ 게재 작품으로 적고 있다. 1931년도 『어린이』에서 『눈오는 밤에』를 확인할 수 없다. 아마 『전집 1』의 잘못된 것이다.

73) 『전집 1』에 1928년 『어린이』 게재로 적혀 있는 『기차』와 다른 작품이다.

74) 『전집 1』에 처음으로 『주간 소학생』 1946년 작품으로 올려진 작품이다.

(동시)	『밤』	『매일신보』		1941. 11. 2.	발굴작
(동시)	『빨래』	『半島の光』 55호	1942. 6. 1.		재발표작 <sup>75)</sup>
(동시)	『종달새』	『半島の光』 55호	1942. 6. 1.		『종달새』 1940년 미상. 연대 오류
(동시)	『봄바람』	『半島の光』 55호	1942. 6. 1.		발굴작
(소년시)	『낙하산』	『半島の光』 57호	1942. 8. 1.		부웨이시, 『전집 1』 미수록
(소년시)	『志願兵을 보내며』	『半島の光』 57호	1942. 8. 1.		부웨이시, 『전집 1』 미수록
(동시)	『어머니』	『아이생활』 9월호	1943.		『밤중에』, 1948년. 재발표작
(농민시)	『보리밭에서- 젊은 農夫의 노래』	『半島の光』 66호	1943. 5. 1.		부웨이시, 『전집 1』 미수록
(수필)	『고도감회』	『半島の光』 11월치	1943. 11. 1.		부웨이수필, 『전집 1』 미수록
(수필)	『농촌아동과 아동문화』	『半島の光』 1월치	1943. 1.		부웨이수필, 『전집 1』, 미수록

(붙임 2) 남대우 작품 죽보기(1938-1945)

갈래	이름	제목	매체	계재 연월	비고
(소년시)	남대우	『옥아』	『카톨릭소년』 3월치	193803	
(동시)	남산초인	『바람』	『카톨릭소년』 4월치	193804	
(동시)	南 星	『별노래』	『카톨릭소년』 4월치	193804	
(동시)	남서우	『맹근쟁이』	『카톨릭소년』 5월치	193805	
(동시)	남대우	『은구슬 금구슬』(1)	『동아일보』	19380515	
(동시)	남산초인	『농부의 탄식』	『카톨릭소년』 7월치	193807	
(동시)	남서우	『우리비』	『카톨릭소년』 8월치	193808	
(동시)	남산초인	『뽕뽕기』	『카톨릭소년』 8월치	193808	
(동시)	申孟元	『서러운 꿈』	『동아일보』	19381120	
(동시)	申孟德	『책새색기』	『소년조선일보』	19381120	하동읍내 공립심상소학교
(동시)	신맹덕	『허수아비』	『소년조선일보』	19381204	하동읍내 공심소
(동시)	신맹덕	『콩나물』	『소년조선일보』	19381218	하동읍내 공립소
(동시)	신맹덕	『내 동생』	『동아일보』	19390129	
(유행가)	南洋草	『추야애상곡』	『영남춘추』	193901	미확인
(유행가)	종달새	『무정합니다』	『영남춘추』	193901	미확인
(유행가)	남양초	『가신 남아 남아』	『영남춘추』	193901	미확인
(편지글)	남서우	『할머니 전상서』	『영남춘추』	193901	미확인

75) 『빨간 열매』에서는 1938년 『주간 소학생』으로 수록했고, 『전집 1』에서는 1946년 『주간 소학생』으로 바로 잡았다. 그러나 『전집 1』 엮은이는 1942년 발표작의 재수록임을 알지 못했다.

(유행가)	남양초	『송춘곡』	『매일신문』	193901	유행가입선 제2석
(유행가)	종달새	『籠中鳥』	미상	193901	미확인
(유행가)	종달새	『희상곡』	미상	193902	미확인
(동시)	金永鈺	『어린 병정』	미상	19390305	미확인
(동시)	김영우	『보실비』	『동아일보』	19390409	하동읍내 공소고 3(남)
(동시)	남대우	『은구실·금구실』	『아이생활』 5월치	193905	김성도 곡보 재수록
(동시)	劉龍炫	『병아리』	『동아일보』	19390618	하동읍내공소고 3남(3)
(동시)	남대우	『산으로 드으로』	『아이생활』 6월치	193906	
(동시)	남대우	『하늘도 빙-빙 · 땅도 빙-빙』	『남선공론』 6월치	193906	
(동시)	종달새	『개나리꽃초롱』	『영남춘추』	193906	미확인
(동시)	남대우	『나나니·나나나』	『영남춘추』 7월치	193907	미확인
(동화)	남대우	『손과 발의 자랑』	『동아일보』	19390802	
(동시)	南相昊	『비새』	『동아일보』	19390924	하동공소고 6(남)
(동화)	남대우	『쩌나간 개똥이』	『만선일보』	19391015	미확인
(동시)	남대우	『은구슬·금구슬』	『동아일보』	19391008	1938년작의 중복발표
(동시)	남대우	『단풍잎』	『동아일보』	19391105	1935년작의 중복발표
(동시)	남서우	『엄마 무덤 가는 길』	『만선일보』	19391217	
(동시)	김영우	『갈가마구』	『매일신문』	19400106	
(동시)	김영우	『벼개애기』	『만선일보』	19400114	신춘문예 입선
(산문)	김영우	『하모니카』	『만선일보』	19400114	입선작문
(동시)	남대우	『애기바람』	『동아일보』	19400211	
(동시)	남서우	『비야비야 오너라』	『동아일보』	19400630	박태현곡보
(동시)	남대우	『보리타작』	『동아일보』	19400707	
(동시)	남대우	『물푸는 아버지』	『동아일보』	19400728	농촌동요
(동시)	남서우	『우리엄마』	『동아일보』	19400804	
(동시)	남서우	『이라낄낄 이 소야』	『아이생활』 8월치	194008	
(동화)	남대우	『거짓말(1)』	『만선일보』	194001	미확인
(동화)	남대우	『거짓말(2)』	『만선일보』	19401013	미확인
(동시)	남대우	『꽃나물』	『소년』 12월치	19401201	
(동시)	김영우	『음매음매 우리소』	『만선일보』	19410108	당선동요 1석. 미확인
(동시)	남대우	『새해마중』	『만선일보』	19410101	미확인
(동시)	남대우	『엄마등은 북이라』	『매일신보』	19410223	
(동시)	남대우	『아가가 혼자 깨어』	『만선일보』	19410228	미확인
(동시)	남서우	『엄마노래』	『남선공론』 3월치	194103	미확인
(동시)	남서우	『자장가』	『남선공론』 3월치	194103	미확인

(소녀소설)남대우	『남을 위하는 마음(상)』	『만선일보』	19410302	미확인
(소녀소설)남대우	『남을 위하는 마음(하)』	『만선일보』	19410303	미확인
(동시) 남대우	『자장노래』	『만선일보』	19410315	미확인
(동시) 남대우	『반사-이』	『매일신보』	19410331	
(동시) 남대우	『나나니 나나니』 <sup>76)</sup>	『만선일보』	19410517	미확인
(동시) 남대우	『고혼 뚝나라』	『만선일보』	19410607	미확인
(동시) 남대우	『첫돌마지』	『매일신문』	19410804	
(동시) 남대우	『썩가』	『매일신보』	19410811	
(동시) 남서우	『우리 아기 인사』	『만선일보』	19410826	
(소년소설)남대우	『참외(상)』	『매일신문』	19410908	농촌소년소설
(소년소설)남대우	『참외(하)』	『매일신문』	194109	농촌소년소설
(동시) 남대우	『우리얘기』	『만선일보』	19410930	미확인
(소년시) 남대우	『감』	『매일신보』	19411005	소년시첩 <sup>77)</sup> 계절과 농촌
(소년시) 남대우	『밤』	『매일신보』	19411005	소년시첩 계절과 농촌
(소년시) 남대우	『박』	『매일신보』	19411005	소년시첩 계절과 농촌
(소년시) 남대우	『새보는 노래』	『매일신보』	19411005	소년시첩 계절과 농촌
(소년시) 남대우	『달 밝은 밤』	『매일신보』	19411005	소년시첩 계절과 농촌
(동시) 남대우	『달, 달, 보름달』	『매일신보』	19411012	
(동시) 남대우	『자장가』	『매일신보』	19411019	194103작의 복발표
(동시) 남대우	『절간』	『만선일보』	19411118	미확인
(소년소설)남대우	『다정한 동무들(상)』	『매일신문』	19411116	농촌소년소설
(동시) 남대우	『자장자장』	『매일신문』	19411123	
(동시) 김정임	『음메음메 우리소』	『매일신문』	19410108	하동공소교 4 당선동요 1석
(동시) 남대우	『잠자는 얘기』	『半島の光』 3월치	194203	동요알범 3편
(동시) 남대우	『하나, 둘, 셋』	『半島の光』 3월치	194203	동요알범 3편
(동시) 남대우	『놀러가세요』	『半島の光』 3월치	194203	동요알범 3편
(동시) 남대우	『어부바』	『半島の光』 6월치	194206	동심화원 5편
(동시) 남대우	『우리 아가』	『半島の光』 6월치	194206	동심화원 5편
(동시) 남대우	『주먹뱀기』	『半島の光』 6월치	194206	동심화원 5편
(동시) 남대우	『새벽』	『半島の光』 6월치	194206	동심화원 5편
(동시) 남대우	『아기 우슴』	『半島の光』 6월치	194206	동심화원 5편
(동시) 남서우	『佛日瀑布』	『아이생활』 1월치	194301	
(동시) 남대우	『雙磎寺』	『아이생활』 1월치	194301	

76) 1939년작과 다른 작품.

77) 연작시로 보아 각기 독립된 작품으로 처리.

(동시)	남대우	『산울림』	『아이생활』 9월치	194309	
(동시)	남대우	『진달래(1)』	『만선일보』	19440428	연작 동요 『봄노래』, 미확인
(동시)	남대우	『할미꽃(2)』	『만선일보』	19440428	연작 동요, 미확인
(동시)	남대우	『안은뱅이(3)』	『만선일보』	19440428	연작 동요, 미확인
(동시)	남대우	『민들레꽃(4)』	『만선일보』	19440428	연작 동요, 미확인
(동시)	남대우	『개나리(5)』	『만선일보』	19440428	연작 동요, 미확인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어린이』, 『별나라』, 『新少年』, 『아이생활』, 『童話』, 『少年世界』, 『새벗』, 『少年』, 『時代像』, 『少年 中央』, 『우리들』, 『家庭の友』 『半島の光』 (鮮文版), 『滿鮮日報』, 『朝鮮日報』, 『東亞日報』, 『每日新報』, 『衆外日報』, 『朝鮮中央日報』, 『불별』, 『嶺南春秋』, 『中央公衆報』, 『南鮮公論』, 『新詩壇』, 『兒童文學』, 『새싹』, 『소년』, 『어린이신문』, 『어린이나라』, 『새동무』, 『진달래』, 『아동문학』, 『과랑새』, 『주간 小學生』, 『小學生』, 『少年世界』

문병찬 엮음, 『朝鮮少年少女童謠集』, 대산서림, 1926, 1-79쪽.

『朝鮮兒童文學集』,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1-341쪽.

남대우, 『우리동무』(제1집), 유인본, 1945, 1-31쪽.

\_\_\_\_\_, 『우리동무』(제2집), 하동문화협회, 1946, 1-58쪽.

\_\_\_\_\_, 『우리동무』, 정윤, 1992, 1-417쪽.

정일영 엮음, 『진달래』, 제일등사소, 1946, 1-31쪽.

정태병 엮음, 『조선동요전집』(1), 신성문화사, 1946, 1-91쪽.

이원수, 『종달새』, 새동무사, 1947, 1-63쪽.

이원수, 『이원수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4, 1-10쪽.

\_\_\_\_\_, 『빨간 열매』, 아인각, 1964, 10-150쪽.

\_\_\_\_\_, 『시가 있는 산책길』, 경학사, 1978, 4-354쪽.

\_\_\_\_\_. 『너를 부른다』, 창작과비평사, 1991, 3-214쪽.

\_\_\_\_\_, 『고향의 봄-동요·동시』(이원수아동문학전집 1), 웅진출판, 1993, 1-418쪽.

\_\_\_\_\_, 『애들아 내 얘기를-수필』(이원수아동문학전집 20), 웅진출판, 1993, 250-293쪽.

\_\_\_\_\_, 『이 아름다운 산하에-시·수필수상』(이원수아동문학전집 26), 웅진출판, 1993, 8-103쪽.

\_\_\_\_\_, 『아동과 문학-아동문학론』(이원수아동문학전집 30), 웅진출판, 1993, 342-356쪽.

편집위원회 엮음, 『고향의 봄-이원수 선생 회갑 기념 아동 문학집』, 아중문화사, 1971, 14-64쪽.

박태일 엮음, 『가려뽑은 경남부산의 시(1) :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출판부, 1997, 67-68쪽. 461쪽.

한정호, 『포백 김대봉 전집』, 세종출판사, 2005, 세종출판사, 3쪽.

## 2. 2차 문헌

『晋州案内』, 진주개문사, 1914, 68-72쪽.

『金融組合運動과 自力更生』,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33, 1-61쪽.

피 득 읊김, 『童話研究法』, 조선주일학교연합회, 1934, 1-14쪽.

채홍석, 『農村更生の 起點』, 계흥사, 1935, 226-251쪽.

윤승환, 『新生活의 常識讀本』, 남창서관, 1944, 171-210쪽.

오 익, 『生活進路』, 생활과학사, 1945, 271-281쪽.

민족정경문화연구소 엮음, 『親日派群像』, 삼성문화사, 1949, 6-174쪽.

김영진 엮음, 『反民者大公判記』, 대건출판사, 1949, 22-171쪽.

편집부 엮음, 『民族精氣의 審判』, 영신출판사, 1949, 91-100쪽.

이재철, 『韓國現代兒童文學史』, 일지사, 1978, 224-233쪽.

이주홍, 『激浪을 타고』, 삼성출판사, 1976, 284-296쪽.

하동읍승격5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엮음, 『하동읍 50년사』, 도서출판 해광, 1989, 33-43쪽.

김용순, 「이원수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1-4쪽.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1), 웅진출판주식회사, 1988, 148-168쪽.

박노정 읊김, 『한글 번역 진주대관』, 진주신문사, 1989, 149-160쪽.

유경환, 「한국 소년신문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9, 1-133쪽.

공재동, 「이원수 동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7-10쪽.

박성식, 「1930년대 경남지역 학생운동」, 『진주지방의 제문제』, 태화출판사, 1991, 200-234쪽.

증춘수, 「이원수 동화·소년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1993, 5-24쪽.

- 임종국,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아세아문화사, 1994, 132-178쪽.
- 김성규, 「이원수의 동시에 나타난 공간구조 연구」, 교원대학교 대학원, 1995, 6-12쪽.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17-273쪽.
- 김수복, 「남대우론/곤궁한 삶 의 인식과 새 시대의 감격」, 『한국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83-97쪽.
- 조선일보80년사편찬실, 『조선일보80년사(상)』, 조선일보사, 2000, 441-445쪽. 523-525쪽.
- 박동규, 「이원수 동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1, 5-9쪽.
- 원종찬, 「이원수 판타지동화와 민족현실-『숲 속 나라』를 중심으로」,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118-119쪽.
- 정진석, 『언론과 한국 현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71-409쪽.
- \_\_\_\_\_, 『역사와 언론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23-265쪽.
- 이재복, 『물오리 이원수 선생님』, 지식산업사, 2002, 13-208쪽.
- 김중현, 「해방기 이원수 동시 연구」, 『우리말글』 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396-398쪽.
-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해안, 2002, 259-335쪽.
- 이오덕, 「이원수 선생의 일제 말기 친일시 어떻게 볼 것인가」, 『창원-영원한 고향의 봄』, 창원문인협회, 2002, 1-30쪽.
- 김화선, 「이원수 문학의 양가성」,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211-238쪽.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47-50쪽.
- 박경수, 「일제강점기 일간지를 중심으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화회, 2004, 201-239쪽.
- 박태일, 「인문학과 지역문학의 발견」,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76-98쪽.
- \_\_\_\_\_,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165-201쪽.

- \_\_\_\_\_,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  
동거울, 2004, 17-51쪽.
- \_\_\_\_\_, 「나라잃은시기 아동매체로 본 경남·부산 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  
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이순옥, 「카프의 매체투쟁  
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243-268쪽.
- 한정호,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집, 한  
국문학회, 2004, 269-299쪽.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286-303쪽.  
배개화, 「1930년대 말 ‘조선’ 문인의 ‘조선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우리  
말글』 33집, 우리말글학회, 2005, 337-359쪽.
- 山根諤, 『金融組合概論』,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35, 131-141쪽  
『情報宣戰』, 조선총독부, 1940, 233-260쪽.
- 육문사 엮음, 『小國民常識讀本』, 육문사, 1943, 35-53쪽.
- 高宮太平 엮음, 『臣道實踐』, 경성일보사, 1944, 28-33쪽.
- 조선상공회의소 엮음, 『戰時産業經營講話』, 조선공론사, 1944, 69-70쪽.
- 三田芳夫 엮음,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國民總力運動聯盟, 1945, 1-169  
쪽.
- 조선총독부정보과 엮음, 『復刻板 新レキ朝鮮』, 風濤社, 1982, 27-82쪽.
- 仲村修, 『韓國·朝鮮 兒童文學 評論集』, 明石書店, 1997, 619-650쪽.
- 宮田節子, 『朝鮮民衆 「皇民化」 政策』, 未來社, 1997, 148-190쪽.
- 中根隆行, 『<朝鮮> 表象の 文化誌』, 新曜社, 2004, 234-260쪽.

<Abstract>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Busan  
Area during the Latter Colonial  
Period(1938-1945)

- focused on the works of Lee, Won-Soo and Nam,  
Dae-Woo

Park, Tae-Il

This study positively investigated a peculiarity presented when Lee and Nam, the juvenile literary men in Kyungnam-Busan area, published their works in media during the latter colonial period (1938-1945). Through the discussion, it was able to make a list of their works; 30 pieces from Lee's productions and 91 from Nam's productions.

Lee showed two peculiar aspects. First, he greatly presented an intentional confusion on the facts about publishing during this period. He made obscurity and mistakes when recording the publication date of 31 pieces among his 33 productions, which published in 『종달새』 in 1947. It had occurred once again when publishing his works in 『빨간열매』 in 1964. Second, Lee seemed to try to establish a fact that 7 pieces of his productions, which had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were under their first publication during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1945-1950).

Nam also had two aspects. First, he showed a great enthusiasm on literature using 12 different pen names since it was rough to publish a work during this period. By expanding his pen name, Nam did not had an identity as a modern writer, however, he was able to build up his local indentity. Second, Nam redundantly published his works in several media, which

indicates his enthusiasm on literature. Nam had grown up as a promising writer during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by these two peculiarities.

Through this study, 7 works of Lee were discovered. It is anticipated that more of Nam's productions would be revealed. A stepstone has been set to study on Lee and Nam.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ir activities further in order to redress the developing phase of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Busan area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Key Words : Children, Lee Won-Su(이원수), Nam Dae-Woo(남대우), Regional Literature, Juvenile Literature, Kyungnam-Busan Regional Literature, local identity. Hadong City, Masan City, Sociology of Literary Fame